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두 가지 복음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8절  
(Tag:복음,율법,물세례,성령세례,신약성경,마가복음)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막1:1-8)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복음 중에 첫째가 되는 복음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그 두 번째 복음이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

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것이 세 번째 복음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다.

이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즉,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명하였다.

마가는 우선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사실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례요한의 선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보다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곧 세례자 요한이었다.

##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3:1절에 예언되어 있다.(이사야의 글은 뒤에 나옴.)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잡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 3:1)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마주보면서 네 앞에, 또는 내 앞이라는 말은 중간에라는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다. 보내신 이유는?

##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3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40:3)

기록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요한을 나올 때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을 낳을 것이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계시하였다. 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말로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태어났고, 그가 나실인으로 살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그의 능력을 보았으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 동편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든 요단 동편이 광야는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세속적인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는 바로왕이 살았는데,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는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저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오직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체득한다.

이 원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구원에 관한 복음이다.

아무나 자기 식대로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한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후회한다면 자살할 확률만 커질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죄책감만 키우게 되며 심지어는 마귀에게 노략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구원을 얻는 회개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죄가 씻김을 받는다.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죄 값을 치루든지, 형벌을 받든지 해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씻김을 받는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상징하며 인을 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이다. (물론 구약성경에는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하였다.)

물세례란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세례요한이 맡았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물론 예수님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오직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권과 정권을 가진 자들과 그 하수인들만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주동인물들이 되며, 세례에 동참하는 자들은 나중에 교회가 된다.)

###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생활에 익숙한 자임을 나타낸다.

세례요한은 말씀의 능력도 탁월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켰다. 아마도 병을 고치거나 또는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닮는 일들을 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사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신약성경의 두 번째 복음은 곧 성령세례에 대한 복음이다.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도 물세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진정한 세례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였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러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야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자이다.’ 라고 외쳤다.

당시에는 아스팔트나 구두도 없었고, 팔레스타인은 흙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조금 잘산다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신발의 끈을 풀어주며 그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베풀어서 당신들을 유익하게 하실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더 자세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즉,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점이 구약성경에 자세히 계시되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복음이기도 하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어린양이 되신단 말인가? 베드로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야만, 진정으로 물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오실 수 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세례의 복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복

음이다.

불세례 또는 성령세례의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복음이다.

우리는 모두다 이 두가지의 복음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실 것을 기도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복음의 삶    **말씀:** 베드로전서3장 8-17절  
(Tag;복음,베드로전서,복음의삶,크리스찬라이프스타일)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3:8-17)

복음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목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마음을 같

이하는 자이다.

-성도는? 성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마음을 같이하는 자이다.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는 자이다.

-참 성도는? 참 목사를 알아보고 그를 귀히 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그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자이다.

-형제를 사랑하며;교인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동정하며-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보살핀다는 것.

-겸손하며;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히 여기라고 하면 안된다. 나도 내가 하는 섬김을 잊어버리고 마땅한 선행을 베풀었다고 여기라는 것이다.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도리어 축복하라.(저주 받은 자를 축복하라. 그에게 나의 복을 주어라.) 왜냐면 내가 복을 이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라;악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라.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화평을 구하라. 특히 악한 자들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하는 행동에 집중하신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하나님은 의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집중하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엄중하신 심판의 얼굴로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에게는 복이 임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병들까, 망할까, 무시당할까, 가난해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까 등.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예수님을 주로 삼으라. 주인으로 삼으라. 가장 우선적이며, 큰 비중으로 삼으라.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3:8-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님.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음.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그렇다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는 의

미.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음.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하고,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 함.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하겠다고 판단했을 경우, 또는 미련함으로, 실수로, 또는 속임에 넘어가서 고난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악을 행하지는 말 것.

-그럴 경우에는 악을 행하여 고난을 모면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